

선택적 함묵증 여아의 모래놀이치료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Sandplay Therapy for a Girl Suffering from Selective Mutism*

심희옥(Hee-og Sim)¹⁾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case of sandplay therapy for a 4th grade girl suffering from selective mutism. Her selective mutism apparently began following an extremely embarrassing experience in kindergarten. Her symptoms were a combination of symbiotic, reactive and passive-aggressive type behaviors. The goal of the therapy undertaken with this child was to enable her to express her repression and suppression, within a free and protective space during sandplay therapy. There were a total of 60 sessions of sandplay therapy. The client described the situations she had experienced in the first sandtray, by placing babies absent caring adults and food on the sandbox. She also placed baby fish away from their mother. In the mid-point of the sessions, she repeated her regressive behaviors by babbling like a baby and fought with snakes and monsters. In the final sessions, she showed integration and adaptation by engaging in snow play, expressing the union of opposites, placing blue and red mig and making a cross on the sand. This study showed the effectiveness of sandplay therapy since her selective mutism was lessened.

Key Words : 모래놀이치료(sandplay therapy), 선택적 함묵증(selective mutism), 퇴행(regression), 여성성(femininity).

I. 서 론

선택적 함묵증 아동은 전형적으로 부모나 형제자매와 같이 가까운 사람과는 집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무 문제없지만 일단 밖에 나가면 전혀

말을 하지 않는다. 제 3자가 보기에는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말을 안하는 것으로 보아 일부러 대화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소아정신의학 분야에서도 실제 이러한 아동을 과거에는 “말하기를 거부한다”고 보았던 시각에

* 이 논문은 2011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논문을 확장한 것임.

¹⁾ 군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ee-og Sim,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Kunsan National University 573-701, Korea
E-mail : simh@kunsan.ac.kr

서 최근에는 “말하기 실패”라는 개념을 강조한다. 즉 이런 아동은 낯선 사람 앞에서 말을 안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말을 못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홍강의, 2005).

선택적 함묵증의 원인은 서로 다양한 요인과 개인차가 있어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어떤 연구자들은 아동이 겪은 충격적인 사건이나 환경의 변화와 같은 분명한 부정적인 생활 경험으로 함묵증이 생긴다고 하고, 가족 내 갈등의 결과로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기도 한다. 또한 아동의 성격특성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다양한 정신역동 때문에 함묵증이라는 증상이 나온다고 주장하기도 한다(Chung & Hong, 1995).

Hayden(홍강의, 2005, 재인용)은 선택적 함묵증을 가져오게 한 심리적 정신역동과 행동양상에 따라 공생형, 언어 공포형, 반응형, 수동-공격형 함묵증 4가지로 분류한다. 공생적 함묵증(symbiotic mutism)은 어머니와 강한 공생적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어머니에게 매달리고, 수줍어하고 예민하게 행동하는 형태이다. 언어 공포증적 함묵증(speech phobic mutism)은 일종의 말하기 공포증으로 말하는 것에 대한 강박적 불안을 보인다. 반응적 함묵증(reactive mutism)은 우울증과 사회적 위축을 동반하고 가족전체가 대인관계에서 소극적이다. 이는 학교 입학, 이민, 입원과 같은 환경의 변화나 심리적, 신체적 외상 후에 갑자기 발생한다. 수동-공격적 함묵증(passive-aggressive mutism)은 침묵을 무기로 삼는 것으로 아동의 적대감이 “말하는 것에 대한 반항적 거부”로 표현되는 것이다.

DSM-IV에 의해 선택적 함묵증으로 진단된 23명 아동 대상의 Chung과 Hong(1995)의 연구에 의하면, 선택적 함묵증의 발병 시기는 평균 7

세 7개월로 대개 학교나 유치원에 처음 들어가는 시기이고, 모자관계의 특징은 지나치게 과보호적이고 지배하려는 어머니와 지나치게 의존적이며 위축되어 있는 아동이 공생적이라는 것이다. 어머니는 대개 감정적으로 미숙하여 아이에게 양가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언어적으로 우세하고 과보호하는 어머니의 특성과 달리 아버지는 수동적이며 존재감이 희미하거나 거리감이 있다. 부모중 한 사람이 어릴 때 수줍음을 지나치게 땀거나 내성적이었거나 함묵증 증세가 있었기도 하다. 부모 사이에 갈등이 있어 내담자의 침묵이 공격적인 상대를 처벌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렇듯 함묵증 아동은 수줍음, 불안감과 함께 고집이 세고 화를 잘 내며 반항적인 성격특성과 함께 미숙하고 의존적인 성격특성을 가진 경우가 많다. 명확하게 한 가지 유형에 속한다기 보다는 혼재된 경우가 많은데 65%가 공생형 함묵증이고, 그다음 많은 것이 수동-공격형 함묵증이다. 침묵이 수동적 공격성의 표현이고 또한 함묵증을 통해 주위로부터 관심을 받고 의존할 수 있는 등의 이차적인 이득을 노리는 행동으로 함묵증을 이해하고 있다. Leonard와 Topol(1993)은 아동이 반항적인 목적에서 “하지 않는다”기 보다는 진정으로 수줍어하고 공포와 불안에 질려서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도 한다(Chung & Hong, 1995, 재인용). 이는 홍강의(2005)의 “말하기 실패”라는 관점과 유사하다.

선택적 함묵증이 어머니와의 강한 공생적 관계로 아동이 자신의 요구 관철을 위해 어머니에게 매달리고 수줍어하며 예민한 행동을 하는 공생형과 침묵을 무기로 삼는 수동-공격형이 대다수여서(Chung & Hong, 1995), 선택적 함묵증과 부모양육태도와의 관련을 살펴보는 것이 선택적 함묵증을 가정환경 차원에서 이해하고, 부모교

육과 같은 적절한 환경적인 개입을 위해 필요하다. 부모양육태도는 자녀의 요구, 자녀의 미래상에 대한 부모의 희망, 양육환경, 사회 문화 등이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심리적 상태이다(임호찬, 2008). 바람직한 자녀양육은 자녀가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갖게 하고, 스스로 행동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게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선택적 함묵증의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치료 접근 방법도 다르다. 치료 방법은 심리치료, 약물치료, 행동주의 중재 등이 있다. 미술치료(Jang, 2007; Lee & Kang, 2006; Park, 2010; Shin & Suh, 2005), 놀이치료(Choi, 2007; Kim, 2006), 모래놀이치료(Chae, 2000; Yu, 1997), 행동주의 접근(Choi, 2006; Yang & Kim, 2006) 등이 선택적 함묵증 아동에게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 중 모래놀이치료는 모래상자에 소품들을 가지고 자기 마음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거의 언어에 의존하지 않는 치료법으로 말을 하지 않는 선택적 함묵증 아동에게 적절하다. 치료자가 제공하는 자유롭고 보호된 공간이 내담자로 하여금 유아기의 정서와 경험으로 퇴행하게 해주어(Winter, 1999) 모래놀이치료는 유아기의 생활 경험과 관련된 문제행동 치료에 효과적이다.

모래놀이치료는 자유롭고 보호된 공간을 제공하며 물리적으로 3차원의 세계를 실제 소품으로 만들어 아직 조직화 되지 않은 이미지를 표현하게 한다. 다시 말해 심리적으로는 모자일체성을 위해 어머니 같은 모성의 공간, 심리적인 자궁, 정서적인 상징을 제공하는 것이다(Weinrib, 2004). 이와 더불어 손으로 무의식의 것을 형상화 해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어 인식을 쉽게 해준다(Ammann, 1991).

또한 모래는 치유의 성질을 지니고 있고

(Weinrib, 2004), 모래상자는 내담자의 정신세계를 표현해 담는 그릇으로 영혼의 정원(a soul garden)과 같은 것이다(Ammann, 1994). 모래상자에 표현한 것은 자기의 표현이며, 자기로 향하는 과정으로 모래놀이과정을 통해 자아가 발달할 뿐 아니라 사회성이 발달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개선될 수 있다(Kim, 1996; Sim, 2011). 모래놀이는 외상, 관계문제, 개인의 성장, 자기(Self)의 통합과 변형 같은 다양한 삶의 사건들을 다루게 해준다(Boik & Goodwin, 2000).

Sim(1994)의 Kawai 자료는 초등학교 3학년 함묵증 여아가 극도로 몸을 도사리고 경직되어 있었는데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여성성이 확립되고 강한 내향적인 경향이 개선된 것을 보고한다. Yu(1997)는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함묵증 여아에게 모래놀이치료를 14회기 실시하여, 내적인 언어에서 외적인 언어로 진행되어, 내담자가 책을 낭독하고 발표도 하며 물건도 구입하게 되어 치료가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한다. Chae(2000) 역시 5세 10개월의 함묵증 남아에게 모래놀이치료를 13회기 실시하여 내담자가 담임선생님 및 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작은 소리로 발표도 하게 된 사례를 보고한다. 이렇듯 모래놀이치료는 선택적 함묵증 아동에게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본 연구는 표면적으로 유치원에서 외상적인 경험을 한 이후부터 부모, 외할머니와 이모, 친척의 또래 아동들과 학교 반의 여자애들하고만 말을 자유롭게 하는 여아의 모래놀이치료 사례를 탐색한 것이다. 함묵증 아동 가정의 정신역동에 대한 Chung과 Hong(1995)의 보고처럼, 본 연구 내담자의 가족역동은 아버지가 어릴 때 수줍음을 많이 탔고 말이 늦었다는 것과 어머니가 가정에서 영향력이 우세한 편이라는 것이다. 내담자의 부모는 주말부부로 외동아인 내담자는 어

머니와 생활하다가 주말과 방학에는 아버지가 계시는 도시에서 생활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담자의 양육문제로 다툼이 잦다. 이처럼 본 연구 내담자의 함묵증상의 원인은 유전적인 부분과 부모의 양육태도, 보육시설에서의 경험, 미국생활과 같은 환경적인 원인의 결합으로 사료된다.

치료자는 내담자에게 모래놀이치료의 자유롭고 보호된 공간을 제공하여, 영유아기의 외상적인 경험과 말을 할 수 있는 아동이 장기간 어느 상황에서는 말을 하지 않을 정도로 억제와 억압된 부분이 자연스럽게 표출되고 완화되어 실생활에서 언어 표현이 보다 자유롭게 되는 것을 치료목표로 삼았다. 본 연구는 내담자의 투사와 객관적 심리검사, 모래놀이치료 과정과 실생활에서의 변화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모래놀이치료의 효과를 제시하려고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양육사 및 내담자의 상황

본 연구의 대상은 치료시작 당시 만 10세 2개월의 4학년 여아로 부모에 의해 상담에 의뢰되었다. 내담자의 아버지는 만 43세로 대학교수이고, 어머니는 만 39세로 고등학교 교사이다. 외할머니는 내담자가 생후 15일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생활하며 내담자를 돌봐 주고 계신다. 어머니의 보고에 의하면, 어머니는 불임관련으로 결혼 후 2년이 지나 내담자를 임신했으며 자연분만으로 출산했다. 내담자는 영아기 때 매우 심하게 울고 예민했으며 모유가 나오지 않아 모유수유를 하지 못했는데 분유도 적은 양을 먹었

다. 낮가림이 심해 남에게 잘 가지 않았다. 많이 먹지 않고 성장이 느려 치료시작 당시 반에서 키가 제일 작았다.

내담자는 만 4-6세까지 다닌 유치원에서 만 5세에 그동안 전혀 실수하지 않던 소변을 옷에 실수했고, 계속 긴장이 되어서 인지 매일 실수를 했으며 나중에는 대변까지 실수를 하게 되었다. 이 때 교사는 내담자에게 바지를 옆 반에서 빌려오라고 하고 손을 들고 있으라고 해 내담자는 수치감을 몹시 느꼈을 것이라고 한다. 이후 내담자는 유치원 담임선생님이나 원장님과 말을 하지 않았다. 내담자는 이 해 유치원의 1박 2일 캠프에 다녀와서 눈을 깜박이는 틱을 보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이 대소변 실수 사건을 상담시작 당시 2년 전쯤 내담자가 초등학교 2학년 경에 조모에게 들었다. 이렇게 내담자는 유치원 때부터 소수의 사람하고만 말을 해 현재 부모님, 외할머니와 이모, 학교에서 친해진 반 여자아이들과는 말을 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서 1년간 생활을 하고 돌아왔다. 미국에서도 담임선생님과 말을 하지 않았으나 동네 미국인 친구들과 영어로 말을 하면서 즐겁게 생활하였다. 함묵증이 계속되어 3학년 때 놀이치료를 6개월 정도 받은 경험이 있는데 이 때 놀이에서 공격성을 많이 드러냈는데 함묵증상은 개선되지 않았다.

아버지의 보고에 의하면, 내담자는 수줍음이 매우 많고 나서기를 싫어하며, 남들에게 주목 받는 것 역시 싫어하고, 남에게 자신의 잘못된 점이나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또한 내담자는 일기장에도 자신의 실수나 안 좋은 이야기를 절대로 적지 않고, 어리지만 나름대로 완벽하려는 성격이 있는 것 같다고 아버지는 보고하였다.

현재 내담자는 낯선 사람이나 아는 어른들이

뭔가 물어도 대답을 못하고 말을 하여 물건을 사는 것도 못하며 인사도 못한다. 내담자는 시골에서 어머니와 생활하다가 주말에 아버지가 오면 징징거리며 울기도 한다. 아버지는 규칙이 있고 합리적인데 반해 어머니는 내담자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이해해 주려고 해 부부가 내담자의 양육문제로 자주 다툰다. 부모가 유치원생도 하는 인사를 못한다며 채근을 하면 내담자는 운다. 내담자는 방학이 되어 아버지가 계신 도시의 새로운 학원에 가면 말을 하겠다고 하나 정작 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새로운 학원의 아동들을 언어적인 의사소통 없이 사귀어 집에 데려오기도 한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40여명의 사람이 모인자리에서 플룻 연주를 하기도 한다. 매우 수줍고 얌전한 아이 같지만 집에서는 매우 적극적이며 밝고 명랑하다. 운동만큼은 뭐든지 적극적으로 잘해서 친구나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는다. 어머니는 내담자가 남들에게 “네”라고만이라도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2) 사례 개념화

내담자는 생래적으로 수줍음이 많고 기질적으로 예민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내담자가 유치원 시기 외상적인 경험을 하면서 선택적 함묵증이 시작된 것이다. 이어 사회적인 관계가 확장되는 시기인 초등학교 1학년 때 미국생활을 하는 언어 환경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함묵증상은 고착된 듯 하다. 또한 내담자는 외동 아동으로 과보호적인 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이차적인 이득을 위해 선택적 함묵증은 심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내담자는 언어가 제한적이어서 언어에 의존하지 않는 모래놀이치료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함묵증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이 깊어 아동의 심리와 바람직한 양육방법에 대해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3) 상담절차

이런 상황의 내담자에게 2009년 1월 5일-2010년 12월 30일까지 부모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방학에는 1주일에 한번, 학기 중에는 학교에 가지 않는 토요일에 내담자가 아버지가 계시는 도시로 올 때인 2주일에 한번 50분-1시간씩 총 60회기의 모래놀이치료가 행해졌다. 치료실은 모래상자들과 소품들이 있고 놀이치료가 가능한 공간이었다. 선행연구에서 선택적 함묵증과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련을 보여주어 내담자의 어머니를 매주 전화 통화나 이메일로 바람직한 양육행동에 대해 교육을 하였다. 이를 위해 어머니는 스스로 매주 이메일로 A4 용지 3-4장 분량으로 내담자의 일상을 보고하고 상담자로부터 내담자를 대하는 태도 등에 대한 부모교육을 받았다.

2. 측정도구

내담자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과 사후 심리검사로 투사검사인 HTP, KFD, KSD와 SCT를 실시하였다. 객관적인 검사로는 내담자의 어머니에게 사전과 사후에 임호찬(2008)의 부모양육태도검사(Parenting Attitude Test, PAT)와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와 하은혜(1997)의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를 실시하였다. 내담자의 사전과 사후 투사적 그림검사는 비교를 위해 **부록 1**에 제시한다.

1) 집-나무-사람(House-Tree-Person, HTP)

HTP는 내담자의 환경에 대한 적응적 태도와 무의식적인 감정과 갈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투사기법의 그림 검사(강봉규, 1999)이다.

2) 동적가족화(Kinetic Family Drawing, KFD)와 동적학교화(Kinetic School Drawing, KSD)

가정과 학교에서 내담자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는 투사기법의 그림검사이다.

3) 문장완성검사(Sentence Completion Test, SCT)

SCT는 미완성의 비교적 짧은 문장을 제시하여 공백부분을 연상하되, 내담자 자신의 이야기로 자유롭게 써넣게 함으로써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시키는 검사법이다. 직접 답하기 어려운 내용의 답을 통해 내담자의 감정, 태도, 동기, 긴장 등을 파악할 수 있다.

4) 부모양육태도검사(Parenting Attitude Test, PAT)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임호찬(2008)의 부모양육태도검사(Parenting Attitude Test, PAT)를 실시하였다. 하위척도는 지지표현, 합리적 설명, 성취압력, 간섭, 처벌, 감독, 과잉기대, 비밀관성 8가지이다. PAT는 양육자의 마음 상태를 다른 부모들과 비교하여 백분율(%)을 제시한다. 지지표현과 합리적 설명은 75% 전·후, 성취압력은 60% 전·후, 간섭은 50%전·후, 처벌과 감독은 40%전·후, 과잉기대는 30%전·후, 비밀관성은 20%전·후를 이상적으로 본다.

5)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

오경자 외(1997)의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를 실시하였다. 이 척도는 위축, 신체적 증상과 우울/불안의 내재화 문제와 비행과 공격성의 외현

화 문제 그리고 내재화, 외현화, 신체증상,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 문제, 성문제 및 정서불안정을 합한 총 문제행동 척도로 되어 있다.

3.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본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다. 첫째, 내담자의 치료과정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모래상자 사진, 놀이, 권위 있는 전문가의 슈퍼비전 내용 등을 활용하였다. 둘째, 치료과정에서 펼쳐지는 주제와 아동의 변화 과정을 학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모래놀이치료 이론 및 분석심리학 이론과의 접목과 해석을 도모하였다. 모래놀이치료 슈퍼비전은 치료기간 동안 한번 그리고 최종회기를 마치고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의 공개사례 발표 모임에 초대된 권위 있는 외국 슈퍼바이저들에게 받았다. 슈퍼바이저들의 지도 감독은 내담자의 문제행동의 원인 규정과 모래놀이치료 과정에 대한 분석 및 해석 등에 관한 것이었다.

III 연구결과

1. 사전 심리검사

사전 심리검사로 첫째, HTP의 집그림은 굴뚝이 있고 두 개의 창문과 조금은 일그러진 문에 문고리가 있는 내담자의 집으로 부모님과 외할머니가 살고 있다. 나중에 이 집은 다른 사람이 산다. 나무는 기둥이 굵고 가지가 굵은 직선인 100세의 건강이 좋은 나무이다. 주변에 조그마한 나무들과 풀이 있다. 소원은 할머니가 빨리 나오시는 것이고, 생각나는 사람은 할머니이다.

첫 번째 사람은 12세의 남자인데 놀고 있다. 두 번째 그린 사람은 12세의 여자로 놀고 있다. 남녀아가 모두 유치원생 연령으로 보이며, 상체를 온전히 그리고 팔을 그려 몹시 부자연스러워 보이며, 손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다. 집의 문이 일그러져 있고, 나무의 기둥이 굽고 가지가 경직되어 있으며, 남녀 사람의 팔이나 몸이 몹시 경직되어 있고, 손은 동그라미로 처리되어 있다. 이런 HTP를 통해 내담자의 내면이 몹시 경직되어 있고, 생동감이나 융통성이 없으며, 교류나 통제, 대처와 관련해서 부적절감과 무력감을 읽을 수 있다(신민섭 외, 2002).

둘째, KFD에서는 원카드를 부모님과 내담자가 동그랗게 앉아 한다. 어머니의 나쁜 점은 악을 쓰면 시끄럽다는 것이다. 여기서 내담자 어머니의 거친 양육행동을 엿볼 수 있다. KSD에서는 남녀 아동이 세 명씩 두 편을 나눠 피구를 하고 있어 학교에서 내담자가 신체적으로 활동적임을 알 수 있다.

셋째, SCT 30문항 중 19개만 응답을 하였다. 문항 중 “나는 친구가 있다”, “우리 엄마는 고등학교 교사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 지연이, 아빠, 엄마, 할머니”, “우리 아빠는 대학교 교수이다”, “여자 애들은 나를 좋아한다”, “남자애들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

아하는 애도 있다”,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_____”, “우리 엄마 아빠 사이는 조금 좋다”, “내가 만일 먼 외딴 곳에 혼자 살게 된다면, 친구와 제일 같이 살고 싶다”로 응답하였다. 여기서 내담자가 부모를 객관적인 직업군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고, 부모보다는 친구와 친밀감을 느끼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다.

넷째, 양육태도의 이상적인 백분율과 내담자 어머니의 사전과 사후 양육태도검사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한다. Table 1에 의하면, 지지표현은 75% 전후가 이상적인데 내담자의 어머니는 100%ile이다. 합리적 설명은 75% 전후가 이상적인데 내담자의 어머니는 98%ile이다. 성취압력은 60% 전후가 이상적인데 내담자의 어머니는 0%ile이다. 간섭은 50% 전후가 이상적인데 내담자의 어머니는 50%ile로 적절하다. 처벌은 40% 전후가 이상적인데 내담자의 어머니는 60%ile이다. 감독은 40% 전후가 이상적인데 내담자의 어머니는 100%ile이다. 과잉기대는 30% 전후가 이상적인데 내담자의 어머니는 70%ile이다. 비밀 관성은 20% 전후가 이상적인데 내담자의 어머니는 15%ile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종합해 보면, 어머니는 너무 애정적인 양육방식을 보여 내담자의 울음이나 고집에도 자주 굴복하게 되어 내담자가 충동적이거나 공격적인 성향이 될

<Table 1> The ideal percentage of parenting attitude and pre- and post-test results of parenting attitude

| | Supportive expression | Rational explanation | Achievement pressure | Interference | Punishment | Monitoring | Over-expectation | Inconsistency |
|----------------|-----------------------|----------------------|----------------------|--------------|------------|------------|------------------|---------------|
| Ideal % | Around 75% | Around 75% | Around 60% | Around 50% | Around 40% | Around 40% | Around 30% | Around 20% |
| Pre-test %ile | 100 | 98 | 0 | 50 | 60 | 100 | 70 | 15 |
| Post-test %ile | 100 | 100 | 5 | 30 | 15 | 80 | 20 | 20 |

<Table 2> Mother's report of the client's internalization, externalization and total problem behaviors

| | Internalization (%ile) | Externalization (%ile) | Total problem behaviors (%ile) |
|-----------|---------------------------|---------------------------|-----------------------------------|
| Pre-test | 58T(79) | 36T(8) | 52T(60) |
| Post-test | 45T(30) | 39T(13) | 42T(20) |

가능성이 있고, 내담자의 자율성 발달을 방해할 위험이 있음을 시사한다. 내담자의 어머니는 자녀의 5년 이상 지속되는 함묵증 때문에 내담자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어머니는 공부나 생활에서 가능한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해 내담자가 어릿냥을 하거나 거친 말을 사용해도 “아이가 스트레스를 어디다 풀겠냐”며 이런 행동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이처럼 어렵게 임신해 낳은 외동아인 내담자에게 어머니는 이상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어머니가 보고한 내담자의 K-CBCL을 Table 2에 제시한다. Table 2에 의하면, 사전의 내재화가 58T(79%ile)이고, 외현화 문제행동은 공격성 세부 항목인 “고함”에서 1점으로 36T(8%ile)이다.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점수가 63T(90%ile)점 이상이면 임상범위로 판단할 때(오경자 외, 1997), 내담자의 내재화 문제는 임상수준은 아니지만 꽤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총 문제행동은 52T(60%ile)이다.

2. 모래놀이치료 과정

총 60회기의 모래놀이치료 과정을 주제의 전환에 맞춰 상담초기, 상담중기, 상담말기로 구분해 시기별로 치료적인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치료회기가 길어 주요 모래상자만 부록 2에 수록한다.

1) 상담초기,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기

상담초기는 1-10회기이다. 상담초기에 내담자는 말을 안 하는 대신 화살 쏘기 등 신체 에너지를 발산하는 놀이를 많이 한다. 모래상자 1-1회기에 물이 담긴 거친 모래상자의 모래를 손으로 으깨 보기도 하고 주먹으로 쥐어 보기도 한다. 1-2회기 하얀 모래 위에는 여러 가지 음식물이 있고, 미끄럼틀의 준비대 위에 작은 여아가 비켜서 있는데 거칠어 보이는 남자들이 미끄럼틀을 점령하고 있는 듯하다. 영아들만이 놓여 있고 광주리에는 막 깨어난 듯 한 아기 병아리가 있다. 긴장한 남자는 상자 밖을 보고 서 있다. 3회기에는 어머니와 분리된 물고기들, 성들과 개들을 모래에 다 파묻어 둔다. 4, 6, 7, 9, 10회기에는 모형에 모래를 채워 모양을 만들어 놓는 찍기 놀이를 한다. 9회기에는 방귀를 끼고 상담후 화장실에 다녀온다. 10회기에는 눈사람을 만들어 놓고, 유토차의 아기를 세심하게 잘 돌본다. 내담자는 방귀를 똥똥 킨다. 아기 인형을 목욕시키고, 인형을 장난감 변기에 앉히기도 한다. 내담자는 어머니에게 상담실에서 한 살짜리 아기를 돌봤다는 이야기를 한다.

2) 상담중기, 퇴행과 투쟁

상담중기는 11-43회기이다. 11회기에는 모래를 오른편으로 올려 모래상자 반의 파란 바닥이 드러나 있다. 놀이를 하며 “흠흠” 아기 소리를 낸다. 방귀를 끼기도 하고 커다란 장난감 변기에 앉기도 한다. 12회기에는 고운 모래상자에

“뱀들의 세상”이라는 상자를 만들고, 코브라 한 마리를 거친 모래상자에 감춘다. 놀이에서 아기 인형에게 우유 등 먹을 것을 많이 주고 놀 친구들을 데려다 준다. 이 친구들과 아기 인형 주변에 울타리를 친다.

13회기에는 모래상자를 만들지 않고 “음음음...”, “푸푸푸...” 등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이는 영아가 말을 하기 이전에 내는 웅얼이 같은 소리이다. 내담자는 어렸을 때 인형을 사준다고 해도 싫어했는데 요즘은 집에서 인형을 챙기고 혼자서 뛰라고 하기도 한다. 또한 집에서 어머니랑 본 TV 드라마가 끝나고 기저귀 선전이 나오자 내담자는 “엄마, 나도 저거 차고 싶다”라고 했다고 한다. 14회기에는 입으로 소리 내는 놀이를 하고 조금은 거칠게 아기 인형을 대한다. 14-17회기까지 입놀림 놀이를 많이 하고 모래상자에 소품을 가져다 놓기보다는 모래를 살짝만 건드린다. 실생활에서 내담자는 욕심이 과해져 어머니가 다른 아동에게 뭔가 작은 것을 주는 것도 싫다고 한다. 내담자는 학교도 가기 싫고 모든 것이 귀찮다고 하며 어머니에게 거친 언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18회기는 모래상자에 커다란 파란바닥이 드러나게 한다. 크게 트림을 하고 놀이에서 입소리를 낸다. 19회기의 모래상자에서는 플라스틱 소금과 후추 통을 거꾸로 해 높이 들고 고개를 옆으로 치켜들고는 통들의 작은 구멍으로 물이 흘러내리게 하는 것을 인내력 있게 하며 이를 바라본다. 입으로 소리내기를 한다. 이즈음 내담자는 실생활에서 상점 아저씨에게 말을 하는데 “응, 요즘 나도 모르게 말이 그냥 돼 버린다니까”하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한다. 20회기에는 의사놀이를 하고, 모래상자에 칼을 세워 놓는다. 괴물이 배트맨을 공격하고, 칼로 배트맨을 찌고, 배트맨이 괴물을 치고, 괴물이 배트맨을 공격하

고, 거미가 괴물을 공격하며, 배트맨이 괴물을 치고, 거미가 괴물을 치기도 한다. 여자 전사가 괴물과 거미를 공격한다. 학교의 1박 2일 야영활동에서 말을 한다. 5학년 첫 학기동안은 4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한 친구하고만 말을 했고 다른 애들과는 말을 하지 않았다. 21회기에는 모래에 동심원을 그린다. 놀이에서 요리를 해 상담자에게 주고 놀이에서 상담실 바닥에 누워 트림을 하기도 한다. 실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이야기하는 사람과 말을 할 때 내담자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커졌다. 22회기에는 모래상자에 각이 진 동심원을 그린다. 트림을 크게 한다. 하얀 모래를 위에서 비며 내리는 눈 놀이를 한다.

23회기에는 방바닥의 새와 동물들을 하나씩 커다란 총으로 겨냥 쏘러뜨린다. 실생활에서는 그동안 싫다고 했던 핑크색 슬리퍼를 사고, 마트에서 큰 소리로 노래도 부른다. 어머니에 의하면, 내담자는 사춘기 증상으로 악을 쓰며 이야기도 하고 투덜대는 것이 심하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대해 질투도 표현한다. 잘 먹는다. 주말에 아버지가 오면 어리광을 피우며 한 두 번씩 운다. 24회기에는 하얀 모래상자에서 철통으로 두꺼비집을 만든다. 트림을 한다. 놀이에서 상담자가 낸 입소리를 내담자는 한참 따라 하기도 한다. 생활에서 내담자는 감기에 걸렸는데 병원에도 안가고 약도 안 먹겠다고 해 어머니와 서로 집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며 싸운다. 25회기에는 모형 찌기 놀이를 한다. 26회기에는 바닷가에 심슨가족이 놀러 왔는데 보드를 든 남아를 모래에 묻는다. 27회기에는 하얀 모래상자에 그어 만든 커다란 네모 안에 젓가락으로 수없이 많은 구멍을 내고 “사격판”이란 다. 아버지가 사준 핸드폰으로 주말에 상담자에게 전화를 하는데 내담자의 목소리는 아주 작고 유치원생 같다. 핑크

색 핸드폰을 사며 “난 원래 여자였거든…” 했단다. 옷도 예전과는 다르게 예쁘고 여성스러운 옷을 사고 타월 같은 천에 핑크색 하트가 아주 많이 박혀 있고 레이스도 붙은 잠옷을 선택하기도 한다. 28회기에는 여자 아이 군인이 조각난 스파이더맨을 맞춘다. 검은 스파이더맨과 빨간 스파이더맨이 서로 싸운다. 검은 스파이더맨과 괴물은 모래 속에 묻어 둔다. 하얀 모래상자의 모래를 여러 번 뒤엎는다. 어머니의 보고에 의하면, 내담자는 산타할아버지의 존재를 믿는 것 같단다. 29회기에는 모래상자에 원숭이 모양을 그린다.

30회기에는 놀이에서 비행기를 들고 비행기가 떠다니는 소리를 내는데 소리가 몹시 탁하다. 모래상자에서 검은 두 개머리 공룡을 무찌른 느낌이고, 에너지원인 주유소가 등장한다. 31회기에는 눈사람을 만든다. 32회기에는 부모님이 원하니 상담자와 말을 해 볼 수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제의하자, 내담자는 무겁고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손으로 모래를 뭉쳐 던지는데 이것이 답답한 내담자의 눈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한 녹아 내리는 눈덩이 같아 보이기도 한다. 33회기에는 눈사람을 그린다. 학교에서 간 스카우트의 일본 여행에서 언니들이랑 말을 하고 돌아온다. 34회기에는 강하고 사나운 동물과 덩치 큰 순한 동물을 대결해 놓는데 독수리가 심판을 보고 개들은 구경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실생활에서 핑크색 신을 샀고, 명절에는 여러 가족들 앞에서 아주 큰 목소리로 웃고 소리도 지른다. 35회기에는 하얀 모래를 채로 쳐 덩이를 남긴 모래상자에 젓가락 화살을 쏜다. 내담자가 유모차에 앉아 있는 인형을 유모차까지 높이 거꾸로 들어도 떨어지지 않는데 떨어질 것(14회기의 놀이에서)을 상담자가 걱정했다며 상담자가 싫다고 어머니에게 말한다. 실생활에서 친조부모와 밥을 먹는데 내

담자는 하고 싶은 말을 곧잘 한다. 36회기에는 인형을 잘 돌본다. 모래상자에서 내담자가 원해 상담자가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주는데 정말 갈증이 심한 사람처럼 상담자의 물을 손으로 받는다. 트림을 강하게 한다. 실생활에서 내담자는 난생처음 피자를 주문한다. 부모는 실생활에서 더 많은 말을 하게하고 싶어 말하는 것을 점수화해서 100점을 채우면 내담자가 원하는 닌텐도 칩을 사주겠다고 한다. 내담자가 수업시간에 발표를 한다. 담임선생님에게 단답형의 말을 한다.

37회기에는 유모차의 아기인형을 돌보고 내담자는 젖병을 빠는 시늉도 한다. 모래상자에 볼링 핀과 볼을 놓는다. 내담자는 부모님께 이제 자기가 말을 하니 닌텐도 칩을 사줘도 된다고 요구한다. 내담자는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조금 아는 사람 앞에서는 말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38회기에는 상담자의 제의로 상담실에서 5가지 말을 한다. 모래상자에 아기가 탄 유모차를 놓는다. 휘파람을 분다. 집에서 정리정돈을 잘 하지 않던 내담자가 책상을 깨끗이 정리한다. 어머니는 학교의 선생님들에게서 내담자의 말문이 되어 얼마나 좋냐는 이야기를 듣는다. 실생활에서는 바르라고 해도 안 받았던 로션을 바르고 멧을 부린다. 내담자는 책상과 방안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공부도 스스로 한다. 39회기에는 모래상자에 구멍을 뚫다가 모래를 덮어 버린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원하면 상담실에서만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제의한다. 내담자는 “상담자가 애들 마음을 모른다”며 상담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어머니에게 드러낸다. 아버지가 상담실에서 편지를 읽든 소리를 내서 뭔가를 하라고 하자 내담자는 아주 쉬운 영어 책을 들고 읽겠다고 한다. 그러나 상담실에서 실제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40회기에는 하얀 모래를 칼로 마구 찍는다. 학교에서는 준비한 숙제를 발표

한다. 41회기에는 고운 모래상자에서 두꺼비집을 만든다. 42회기에는 상담자가 먹을 것을 준비해 상담시작 전 내담자에게 먹게 한다. 조롱박을 하얀 모래상자에 찍어 놓는다. 방귀를 끼고 트림도 한다. 43회기에는 상담하기 전에 대변을 보고 들어온다. 하얀 모래로 두꺼비집을 만든다.

3) 상담말기, 통합과 적응

상담말기는 44-60회기이다. 44회기에는 하얀 모래상자에 8조각으로 자른 케이크를 만들고 화살 던지는 놀이를 힘차고 즐겁게 하며, 상담자의 “화살로 다시 중심을 맞췄어”라는 말에 내담자는 작게 “으응”이라고 답을 하기도 한다. 내담자는 어머니에게 파란 운동복은 남자 것 같이라며 싫다고 한다. 45회기에서 모래상자에 5개씩의 파랑색과 빨강색 공기들을 놓는다. 내담자는 혼자서 학교 준비물을 사서 학교에 간다. 전학 전 방학에 사귀었던 아이가 전학 온 학교에서 반의 짝꿍이 되고 새 학교의 친구들과 이야기도 한다. 어머니가 상담자와 말을 하고 상담을 끝내보라고 하자 내담자는 상담실에 가서 상담자의 묻는 말에 대답을 해보겠다고 한다. 46회기에는 3살 짜리 남자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모래상자에 놓는다. 상담실에서 말을 하지는 않는다. 이제는 내담자가 스스로 말을 하겠다고 하는데 막상 하려면 안 되는 것 같다. 내담자는 어머니에게 상담자와 말을 하지 않겠다고도 한다. 떠나온 시골 학교 담임교사와의 전화통화에 의하면, 내담자는 상담을 받으면서 준비한 것을 발표도 했고 교사가 옆에 있어도 친구들과 아주 말을 많이 했다고 한다. 옆 반에 가서 “선생님이 조용히 하래”라고 시키면 하고도 왔단다. 내담자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도시의 새 학교적응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47회기부터는 어머니가 더 이상 상담실에 오

지 않아 상담자는 내담자를 위해 상담하기 전에 간단히 먹을 것을 준비한다. 내담자가 먹을 동안 상담자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내담자는 고갯짓 같은 것으로 반응을 한다. 모래상자에 강태공, 자전거와 주유소가 등장한다. 내담자가 선택적 함묵아동임을 모르는 전학 온 새 학교의 담임교사는 내담자가 쉬는 시간에 남학생들과 꿀밤 먹이기도 하며 놀고 바뀐 마음 깊은 짝꿍과도 말을 하며 잘 지내고 있다고 한다. 48회기에서는 모래상자 전체에 손바닥을 찍는다. 집에서 다음날 학교에 갈 것을 챙기고 정리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등 생활습관이 아주 좋아진다. 도시로 전근을 온 어머니는 내담자가 등교하는 것보다 먼저 출근을 하는데 이제 내담자를 믿을 만 하다고 생각하며 내담자를 향한 마음이 많이 느슨해졌다고 한다. 49회기에서는 방귀를 여러 번 크게 꾸며 웃는다. 모래상자에 모래로 귀모양을 만들고 제목을 “귀”라고 적는다. 50회기에는 트림을 한다. 고운 모래상자의 중앙을 드러내고 물고기 등바다 생물을 놓고 여러 가지 과일을 모래 위에 놓는다. 내담자는 부모가 원하지만 상담자와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한단다. 치료실에서 상담자가 이를 존중하겠다고 하자 내담자는 아주 편안해 한다. 내담자는 학교에서 운동 잘하는 학생으로 보이기 싫다며 “내가 여자지만 남자처럼 야구 잘하는지 엄마도 알지”하며 체육시간에 살살 한단다. 51-52회기 모래상자에 다시 소품을 놓는 대신 손바닥을 찍기도 하고 솔로 모래를 쓸기도 한다. 어머니에 의하면, 내담자는 상담실에 아기 인형의 옷을 토끼가 입고 있는 것이 싫다고 한단다. 이는 다른 유아 내담자가 놀고 놓은 모습이다. 내담자는 이 아기인형을 동생처럼 생각한다고 한다. 불링 불이 거친 모래상자에 던져져 있다.

53회기에는 하얀 모래를 기다란 주걱으로 여

러 번 굶고 “눈”이라고 제목을 적는다. 상담실에서 “아이고”라는 소리를 자신도 모르게 한다. 전학 온 학교에서 많은 남학생들이 내담자가 귀엽다며 좋아하는데 내담자는 옷 투정도 하며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 내담자는 악기점에서 고장난 자신의 바이올린이 어떤 상태인지 주인에게 큰소리로 설명을 한다. 새 학교 담임교사하고도 필요한 말을 한다. 54회기에는 상담 중 자신도 모르게 “아이고”라는 말을 여러 번 한다. 놀이에서는 아기를 잘 돌보고 뭔가를 향해 충을 많이 쓴다. 모래상자에 소리 나는 충으로 뱀모양을 그리고 제목을 “뱀”이라고 적는다. 휘파람을 분다. 어머니에 의하면, 내담자는 새 학교에 와서 부쩍 욕심을 부린다. 해오던 여러 가지 악기 레슨을 다시 계속 받겠다고도 한다. 55회기에는 모래를 중앙에 다 모아 놓고 뿔망치를 꽂아 두고 제목은 “등대”란다. 놀이를 하며 “어흐”라는 소리를 내기도 한다.

56회기에는 공기 넣는 기구로 바람을 나게 해 나비, 잠자리와 벌을 날게 한다. 어머니에게 공부 재미있다고 하며 중학교 책도 사달라고 한다. 57회기에는 모래상자에서 모래를 모아 “십자가” 형상을 만들고, 젓가락으로 가로와 세로를 찍어 이를 확실히 드러나게 한다. 휘파람을 계속 분다. 하얀 모래를 채로 치고 손바닥에서 모래가 떨어지게 하기도 한다. 모래를 만지며 “혁”, “턱” 등 소리를 내기도 한다. 제목은 “눈”이다. 58회기에는 거친 모래상자에 물을 스프레이로 뿌리고 중앙 바닥을 드러내며 솔로 드러난 바닥을 깨끗이 한다. 제목은 “호수”라고 적는다. 키보드를 치고 곡을 고르는 동안 휘파람을 불기도 한다. 59회기는 모래상자를 하지 않고 내담자가 가져온 풍선을 불어 상담자와 서로 주고받는 놀이를 한다. 60회기(최종회기)에는 하얀 모래를 채로 흔들며 눈이 내리게 한다. 커다란 케이크 칼을

바닥에 놓아 남녀아가 똑같이 출발하게 한다. 내담자는 앙증맞게 영아들의 기는 모습을 보며 상담자와 함께 웃고, 영아들이 기는 동안 케이크 칼로 모래를 거칠게 가르고 모래를 쭈시며 모래 놀이치료는 종료된다.

3. 사후 심리검사

사후 심리검사는 비교를 위해 사전검사처럼 HTP, KFD, KSD 그리고 SCT를 실시하였다. 첫째, HTP의 집그림에서 집을 옆모습으로 입체적으로 그렸다. 내담자, 부모님과 외할머니가 사는 화목한 집이다. 나무는 100세로 단풍나무이다. 소원은 오래 사는 것이고 필요한 것은 햇빛이다. 생각나는 사람은 할머니이다. 먼저 그린 사람은 20세의 남자로 친구들이 많다. 두 번째 사람은 7세의 여아로 친구를 기다린다. 사전검사의 다소 곱해 보였던 집이 옆모습의 집으로 바뀌었으나 지붕과 벽으로 이어지는 선들이 있어 여전히 불안감이 있음을 알 수 있다(신민섭 외, 2002). 사전검사의 나무는 어려 보였는데 사후에는 수관도 큰 자연스런 나무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코와 입이 생략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사전검사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진 모습이다.

둘째, KFD는 부모님과 내담자가 식탁에서 밥을 먹는 모습이다. 사전검사의 원카드를 하던 모습이 밥을 먹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KSD에서 칠판 앞에 선생님과 네 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교실이다. 피구하던 학교 그림에서 공부하는 그림으로 바뀌었다.

셋째, 사후 SCT는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도 없다. 문항 중 “나는 친구가 많다”,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아빠, 엄마”, “우리 아빠는 착하다”, “여자들은 나와 같이 논다”, “남자들은 스포츠를

좋아한다(체육)”,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뭐가 잘 안될 때”, “우리 엄마 아빠 사이는 다정하다”, “내가 만일 먼 외딴 곳에 혼자 살게 된다면, 부모님과 제일 같이 살고 싶다”로 응답하였다. 내담자는 모래놀이치료 후 SCT에서 부모님에 대해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자신이 언제 화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는 표현을 하고 있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지지표현과 합리적 설명은 여전히 100%ile이고, 성취압력은 5%ile이며, 간섭은 30%ile이고, 처벌은 15%ile이며, 감독은 80%ile이고, 과잉기대는 20%ile, 비밀관성은 20%ile이다. 지지표현과 합리적 설명은 여전히 높다. 성취압력은 하위 5%ile로 약간 상승했으나 이상적인 수준은 아니고, 간섭은 좀 더 낮아져 30%ile이고, 처벌은 60%ile에서 15%ile로 딱 떨어졌다. 감독은 100%ile에서 80%ile로 떨어졌다. 과잉기대는 20%ile로 상당히 떨어졌다. 감독이 줄고, 과잉기대도 상당히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K-CBCL은 위축, 신체적 증상과 우울이나 불안 같은 내재화 문제는 13T 감소해 30%ile로 많이 완화되었다. 이는 내담자의 선택적 함묵증이라는 증상의 기저에서 작용할 수 있는 내재화 행동문제가 모래놀이치료 후 많이 개선되었음을 시사한다. 외현화 문제는 공격성 세부 항목인 “말다툼” 문항에서 1점으로 총점은 사전검사와 같으나 나이변화로 T점수가 달라진 것 뿐이다. 총 문제행동은 10T가 감소해 20%ile이 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표면적으로 유치원에서 외상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부터 초등학교 4학년 말 상담을 시작할 때까지 부모, 함께 생활하는 외할머니, 이모 그리고 학교 반에서 친한 여자 친구들과 하고만 말을 해오고 있는 내담자의 모래놀이치료 사례를 탐색한다. 내담자의 함묵증은 우선 기질적으로 수줍음이 있고, 유치원 시기의 외상적인 경험과 이어지는 미국생활로 말을 안하는 것이 굳어졌고, 또한 어머니의 지나친 보호와 기대 같은 양육행동과 더불어 부모와 주변 사람들이 내담자가 말을 하는 것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어 내담자는 이차적 이득을 위해 함묵행동이 굳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내담자의 어머니는 지지표현과 합리적인 설명이 지나치게 높고, 성취압력은 지나치게 낮는데 감독과 기대는 높아 내담자가 이상적이지 않은 양육 환경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내담자의 함묵증은 공생형, 반응형과 수동-공격형의 혼합으로 보여진다.

본 논의에서는 치료과정에서 모래상자에 펼쳐지는 주제와 내담자의 문제행동의 변화 과정을 학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모래놀이치료 이론 및 분석심리학 이론과의 접목과 해석을 도모해 본다. 내담자는 총 60회기까지의 모래놀이치료에서 모래상자에 소품으로 내면의 세계를 쏟아 놓았다가 다시 소품을 놓지 않고 모래를 만지거나 하는 형태의 놀이를 반복한다. 내담자가 외부와의 관계에서 언어표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외부와의 관계를 맺으려는 마음이 형성 안되었던 것으로 이를 모래상자에 아무 것도 안 놓는 것으로 표현해 이것이 내담자의 내적인 언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더불어 상담초기에 말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내담자는 모양 찍기 놀이로 뭔가를 만드는 작업을 반복한다.

상담초기에 많은 내담자가 자신이 심리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모래상자에 표현한다(Kalff, 2003;

Weinrib, 2004). 본 연구의 내담자 역시 상담초기(1-10회기, 자신의 상황 드러내기)인 1회기에 모래 위에 놓은 음식물들과 돌보는 성인 없이 있는 영아들의 모습과 거친 남자들이 차지한 미끄럼틀로 내담자가 자신의 영유아시기를 잘 지내지 못한 것을 보여준다. 3회기의 어머니와 떨어져 있는 봉어들, 작은 성들, 강아지와 개들을 모래로 다 덮어 둔 모래상자 역시 내담자가 어린 시절에 돌봄을 잘 못 받은 것을 표현하는 것 같다. 내담자는 영아기에 소리에 민감하고, 조금 많이 먹었다 싶으면 먹은 것을 다 토해 냈고, 목욕할 때는 자지러지게 울었다. 상담진행 중 어머니는 내담자가 생후 몇 개월 안 되었을 때 밤에 너무 울었는데 옆방에 사는 같은 학교의 예민한 여자 선생에게 미안한 마음에 당황해 하며 내담자의 뺨을 여러 번 쳤다는 말을 한다. 이 때 어머니는 조모가 말려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이런 상황은 내담자가 어려운 기질의 아이일 수 있다는 것과 함께 내담자가 원하는 욕구에 민감하거나 반응적이지 못한 환경을 또한 생각해 보게 한다. 이런 내담자가 상담실에서 영아를 돌보는데 이는 돌봄이 필요한 자신을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치료자의 자유롭고 보호된 공간의 제공으로 내담자가 영유아기로 퇴행을 해 그 때의 정서와 경험을 하게 해준다는 모래놀이치료 이론가들의 주장을 지지해 준다(Winter, 1999).

상담중기(11-43회기, 퇴행과 투쟁) 내내 내담자는 영아기로 퇴행을 해 놀이에서 웅알이 같은 소리를 많이 낸다. 상담자가 함께 놀이를 하면서 리듬을 만들기 위해 손으로 탁자를 치며 소리를 내면 내담자도 이에 맞춰 웅알이 소리를 내기도 한다. 이는 선택적 함묵증 아동이 낯선 사람 앞에서는 말을 안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말을 못하는 것(홍강의, 2005)이라는 개념이 더 적절한 해석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내담자는 말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지 못하는 아동으로, 자신이 상처를 입은 영유아시기로 퇴행을 해 영아들처럼 웅알이부터 하는 것이다. 이런 웅알이와 함께 내담자는 상담 중 트림을 많이 한다. 트림 역시 영아를 먹이고 소화를 돕기 위해 시키기도 하는데 내담자는 상담실에서 내면의 소화를 위해 트림을 많이 한 것 같다. 또한 상담실에서 이런 웅알이와 함께 집에서는 그동안 놀지 않던 인형을 찾아 가지고 놀기도 하고 기저귀를 차고 싶다고도 한다.

모래놀이치료과정에서 내담자는 종종 트림, 방귀나 대소변 같은 신체적인 증상을 보인다. 이것들은 다 창조적인 활동인데(Lee, 2010), 김보애(2004)는 이를 모래상자가 개입해 내담자의 마음과 신체가 연결된 것이라고 한다. 이렇듯 내담자는 모래놀이를 통해 자신의 영유아기로 돌아가 소화되지 않고 있는 내면을 소화시키고, 내면에서 소통되지 않았던 부분을 통하게 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와 더불어 내담자가 29회기 모래상자에서 소금과 후추통의 작은 구멍으로 물이 빠져 나오게 하는 놀이를 인내력 있게 한 후, 실생활에서 내담자는 “자신도 모르게 말이 그냥 된다”는 표현을 한 것은 매우 흥미롭다. 모래놀이를 통해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들이 실제생활에서 연결되어 나온 것이다. 이런 이유로 모래놀이치료는 신비스런 과정이라고 묘사되곤 한다(김보애, 2004).

또한 상담중기에는 괴물과 배트맨의 싸움, 여자전사와 괴물 및 거미와의 싸움 등의 투쟁도 있다. 23회기는 새사냥과 동물사냥으로 내담자 내면의 부정적인 것을 없애는 작업도 한다. 내담자는 주말에 만나는 아버지에게 어릿냥을 하며 울고 어머니와 생활하면서 악을 쓰고 투덜대며 불균형적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런 불균형적인 모습을 29회기 모래상자에 그린 원숭이의

모습이 대변해 주는 것 같다. 원숭이는 삶에서 적절한 자리를 허용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교를 꾸미고 있는 무의식의 힘들을 상징한다(Kim, 1997; Cooper, 1978). 원숭이는 계속 균형을 찾으려는 내담자를 트릭스터처럼 방해하는 것 같다(이부영, 2001; 2002). 이와 더불어 34회기에는 강하고 사나운 동물과 덩치가 큰 순한 동물을 대결해 놓는다. 투쟁은 혼란이며 죽음이나 파괴에 연결되는 것이지만, 대립은 투쟁이 명확하게 된다는 의미에서는 하나의 질서이다(Kim, 1996). 이는 내담자의 내면이 점점 안정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담말기(44-60회기)는 통합과 적응의 시기이다. 45회기의 던져진 파란과 빨강색의 공기들은 대극의 합일을 표현한 것 같다. 또한 49회기에는 귀를 모래상자에 만들어 놓는데 귀는 무의식으로부터 나온 경고일 수 있는데 그 경고는 무의식이 말하려고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내적인 자기에게 귀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Kim, 1997). 55회기의 “뽕망치 등대”라는 모래상자에서 등대는 바다 표면 아래의 땅 깊이 들어가는 것으로 어머니 땅과 아버지 하늘의 대극이 화합하는 것으로 영적인 높이와 근본이 되는 깊이, 의식과 무의식, 지하의 어둠 세계와 집 꼭대기의 불빛이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Sharp, 2000). 이처럼 내담자는 계속되는 무의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통합을 해 나간다. 이어지는 57-1회기 모래상자의 십자가는 삶에서 무엇인가가 끝났다는 것 또는 끝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담자 역시 상담의 종료, 자신 내면의 작업이 끝나감을 표현하는 듯하다(Kim, 1997). 또한 십자가는 대극의 합일(conjunction of opposites)을 의미하기도 한다(Bradway, 2001). 이런 통합을 위해 47회기의 모래상자에 주유소, 자전거, 강태공을 놓아 에너지가 있고, 성취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50회기 역시 과일들로 풍부한 에너지를 표현한다(Bradway, 2001; Kim, 1997). 이후 내담자는 악기점에서 자신의 고장 난 바이올린의 상태를 상점 주인에게 말로 크게 설명하게 된다.

58회기의 호수는 무의식을 상징하기도(Kim, 1997)하고 또한 여성성(Sim, 1994; Cooper, 1978)을 상징하기도 한다. 내담자는 사전의 사람그림에서 남아를 먼저 그렸고, 사후검사에는 여아 같은 남아를 먼저 그렸다. 김동연 외(2002)에 의하면, 인물화에서 이성 상을 먼저 그리는 사람은 의미 있는 사람이 이성이며, 그 사람과 심리적으로 밀착된 경우이고, 성의 동일시에 혼란이 있거나 또한 자신의 성적 역할을 심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정확히 어떤 과정으로 내담자가 자신의 여성성에 대해 부정적이었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내담자는 부정적인 여성성을 가졌던 것 같다. 이는 모래놀이치료과정에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한다. 모래놀이치료와 더불어 내담자는 실생활에서 “난 원래 여자였거든”이라는 말도 하며, 늘 분홍색 계열을 싫어했는데 분홍색을 좋아하게 되어 분홍색 핸드폰, 잠옷, 신발 등을 구입하게 된다. 이는 Sim(1994)의 Kawai 자료에서 극도로 몸을 도사리고 경직되었던 초등학교 3학년 함묵증 여아가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여성성이 확립되고 내향적인 경향이 개선된 사례와 유사하다. 또한 내담자는 상담실에서 남성적인 화살놀이(Cooper, 1978)를 많이 하는데, 모래놀이치료 진행으로 내담자는 자신의 강한 남성적인 부분과 여성성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남성성과 여성성 간의 대극의 합일이 이루어진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내담자는 10(눈사람), 22(눈), 31(눈사람), 33(눈사람), 53(눈), 57(눈), 60(눈)회기에서 눈을 내

리게 하거나 눈사람을 만든다. 눈은 관계에서의 냉랭함이나 냉담을 의미하고 정서적인 냉정함이나 외로움을 나타내기도 하며(Brugler, 2011), 또한 얼어붙은 정서를 상징하기도 한다(Kim, 1997). 내담자는 자신의 안 되는 말이 눈처럼 차갑고 냉랭할 때문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다. 이런 차가움이 모래놀이치료의 자유롭고 보호된 공간에서 변화되어 간다. 눈이 녹는 것은 차가운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을 뜻하는데(Cooper, 1978), 32-1회기에 내담자가 만든 모래덩이는 녹는 눈의 모습을 표현한 것 같다. 또한 눈은 새롭고 깨끗한 출발을 상징하는데(Kim, 1997), 60 최종회기의 하얀 모래를 채로 흔들며 눈이 내리게 하는 모습은 기는 남녀 영아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는 듯하다.

사후 심리검사는 전체적으로 사전검사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졌다. HTP의 집은 부모님과 외할머니가 사는 화목한 집이 되고, 나무는 사전보다 훨씬 자란 나무이다. 사후 KFD는 부모님과 밥을 먹는 모습이다. 사후 KSD는 다른 아동들과 공부하는 모습이다. 사후 SCT에서는 부모님을 정서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사람들의 모습이 좀 더 자연스러워졌으나 코와 입을 그리지 않았다. 이는 내담자가 타인과 교류하는 것에 갈등이 있고 움츠러들 수 있음을 말해준다(김동연 외, 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이상적인 방향으로 좀더 바뀌었다. 객관적인 검사인 내담자의 K-CBCL은 위축, 신체적 증상, 우울이나 불안 같은 내재화 문제가 의미롭게 완화되었고, 총 문제 행동 역시 의미롭게 감소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유아시기부터 소수의 사람하고만 말을 하는 선택적 함묵증 아동이 말로 자신의 필요한 부분을 표현할 수 있게 된 모래놀이치료 사례이다. 내담자는 만 2년에 걸친 모래놀이치료과정에서 자신을 드러냈다가 다시 감췌

다가를 반복한다. 상담초기에는 자기처지, 영유아시기에 적절하게 돌봄을 받지 못한 것을 드러내고, 말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뭔가를 만드는 작업으로 모형 찍기 놀이를 반복한다. 상담중기에는 내담자의 함묵증의 근원 중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아기로 퇴행을 해 웅알이를 하고, 트림과 방귀를 많이 꾸며 소화되지 않고 소통되지 않았던 내면을 소통시키는 작업을 한다. 또한 뱀이나 괴물과 투쟁하고, 새와 동물 사냥을 하는 모습으로 자기 내면의 부정적인 부분을 없애는 작업을 한다. 상담말기에는 에너지를 얻으며 통합과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함묵증의 어려움에서 진전이 있어 부모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의 마음이 좀 더 느긋해지면 내담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내담자는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실생활에서 긍정적인 여성성을 보이고,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많이 사라지는 등 위축, 신체적 증상, 우울/불안 같은 내재화 문제가 많이 완화되고, 무엇보다도 점점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새로운 학교에서도 적응을 잘해 선택적 함묵증이 있는 아동으로 전혀 보지 않아 모래놀이치료가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한 사례만을 사례연구로 탐색하여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선택적 함묵증 아동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위해 유사한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내담자의 무의식의 흐름을 따라 장기간의 치료를 통해 선택적 함묵증 아동의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를 모래놀이치료 이론과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탐색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치료기간 동안 매주 부모에게 아동의 심리나 바람직한 양육행동에 대해 교육했지만,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사후검사에서도 여전히 이상적이지 못한

영역이 있음을 생각할 때, 내담자가 모래상자에서 스스로 행한 무의식의 작업이 자신의 문제행동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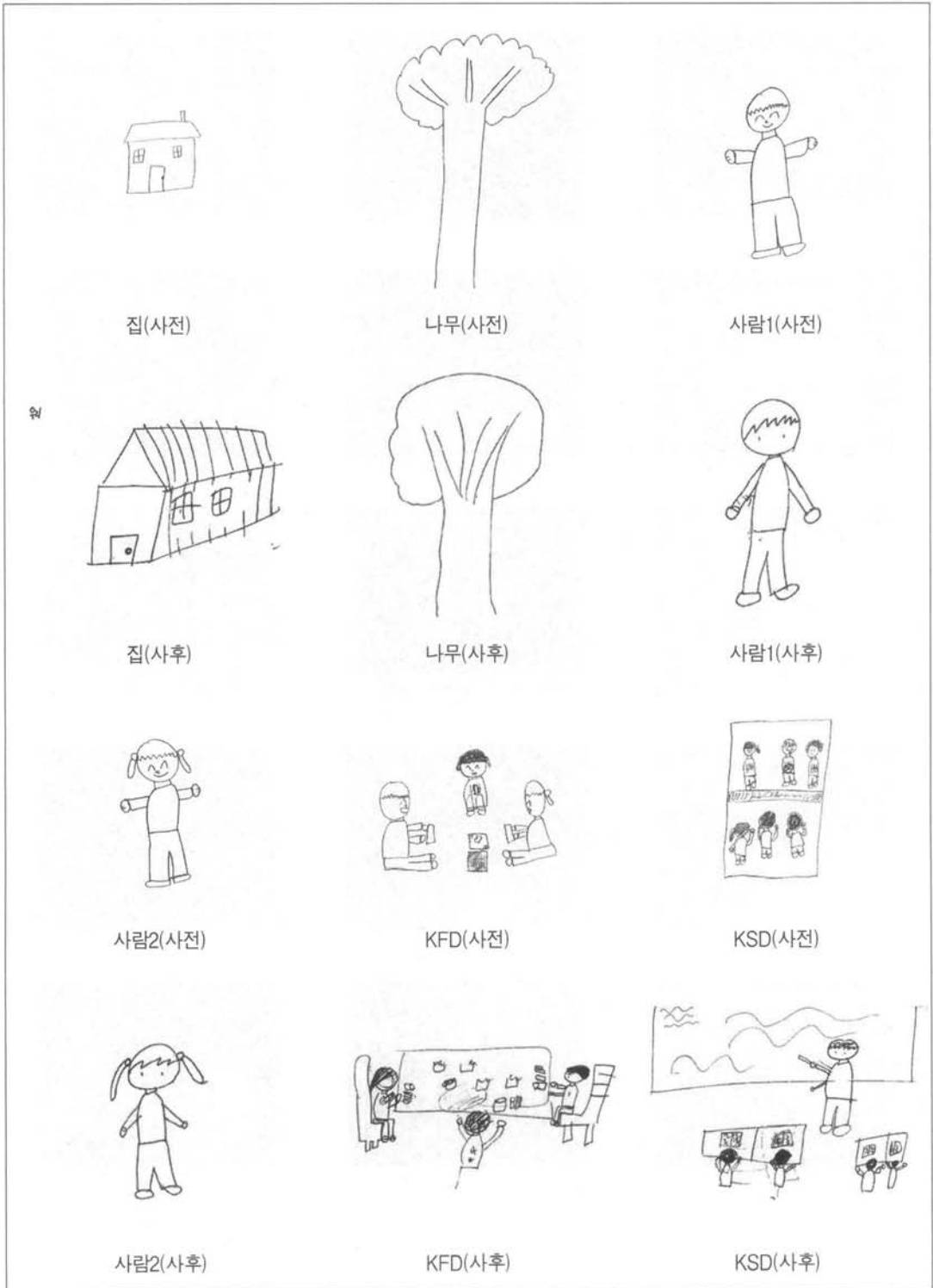
참 고 문 헌

- 강봉규(1999). **심리검사의 이론과 기법**. 서울: 동문사.
- 김동연·공마리아·최외선(2002). **HTP와 KHTP 심리진단법**. 서울: 동아문화사.
- 신민섭·김수경·김용희·김진영·박혜근·이혜란 외(2002). **그림을 통한 아동의 진단과 이해**. 서울: 학지사.
- 오경자·이혜련·홍강의·하은혜(1997).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이부영(2001). **아니마와 아니무스**. 서울: 한길사.
- 이부영(2002). **자기와 자기실현**. 서울: 한길사.
- 임호찬(2008). **부모양육태도검사(Parenting Attitude Test, PAT)**. 서울: 마인드프레스.
- 홍강의(2005). **소아정신의학**. 서울: 중앙문화사.
- Ackroyd, E. (1997). *A dictionary of dream symbols* (B. M. Kim, Trans.). Seoul : Korea Psychotherapy Institute. (Original work published 1993).
- Ammann, R. (1991). *Healing and transformation in sandplay : Creative processes made visible*. Chicago & Las Salle, Ill : Open court.
- Ammann, R. (1994). The sandtray as a garden of the soul. *Journal of Sandplay Therapy*, 4(1), 46-65.
- Boik, B. L., & Goodwin, E. A. (2000). *Sandplay therapy : A step-by-step manual for psychotherapists of diverse orientations*. New York, N Y : W. W. Norton & Company.
- Bradway, K. (2001). Symbol dictionary : Symbolic meanings of sandplay images. *Journal of Sandplay Therapy*, 10(1), 9-110.
- Brugler, B. (2011). Frozen in time ice and snow in sanplay therapy. *Journal of Sandplay Therapy*, 20(2), 127-140.
- Chae, Y. S. (2000). Therapeutic case studies of maladjusted children with sanplay box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K. H. (2007). The case study on play therapy for a child who has selective mutism.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Science*, 46(3), 51-71.
- Choi, S. L. (2006). A case study of self-expression training program on a child with selective mut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Jinju University, Seoul, Korea.
- Chung, S. J., & Hong, K. O. (1995).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treatment courses of the children with selective mutism. *Korean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6(1), 74-89.
- Cooper, J. C. (1978). *An illustrated encyclopaedia of traditional symbols*. New York, NY : Thames & Hudson.
- Jang, S. S. (2007). Effects of art therapy on problem behavior and social skills of the children with selective mut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Pyeungtack University, Seoul, Korea.
- Kalff, D. M. (2003). *Sandplay : A psychotherapeutic approach to the psyche*. Cloverdale, CA : Temenos press.
- Kawai, H. (1994). *Sandplay therapy* (J. K. Sim, Trans.). Seoul : Yangyoungkak (Original work published 1969).
- Kim, J. H. (2006). The effect of Play Therapy on Self-concept and problem behaviour of child with selective mut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 Kim, Y. S. (1996). The therapeutic implications of sandplay through psychotherapy of kindergartner. *Journal of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2, 291-305.
- Lee, K. M., & Kang, J. H. (2006). The effect of art therapy on the improvement of the commun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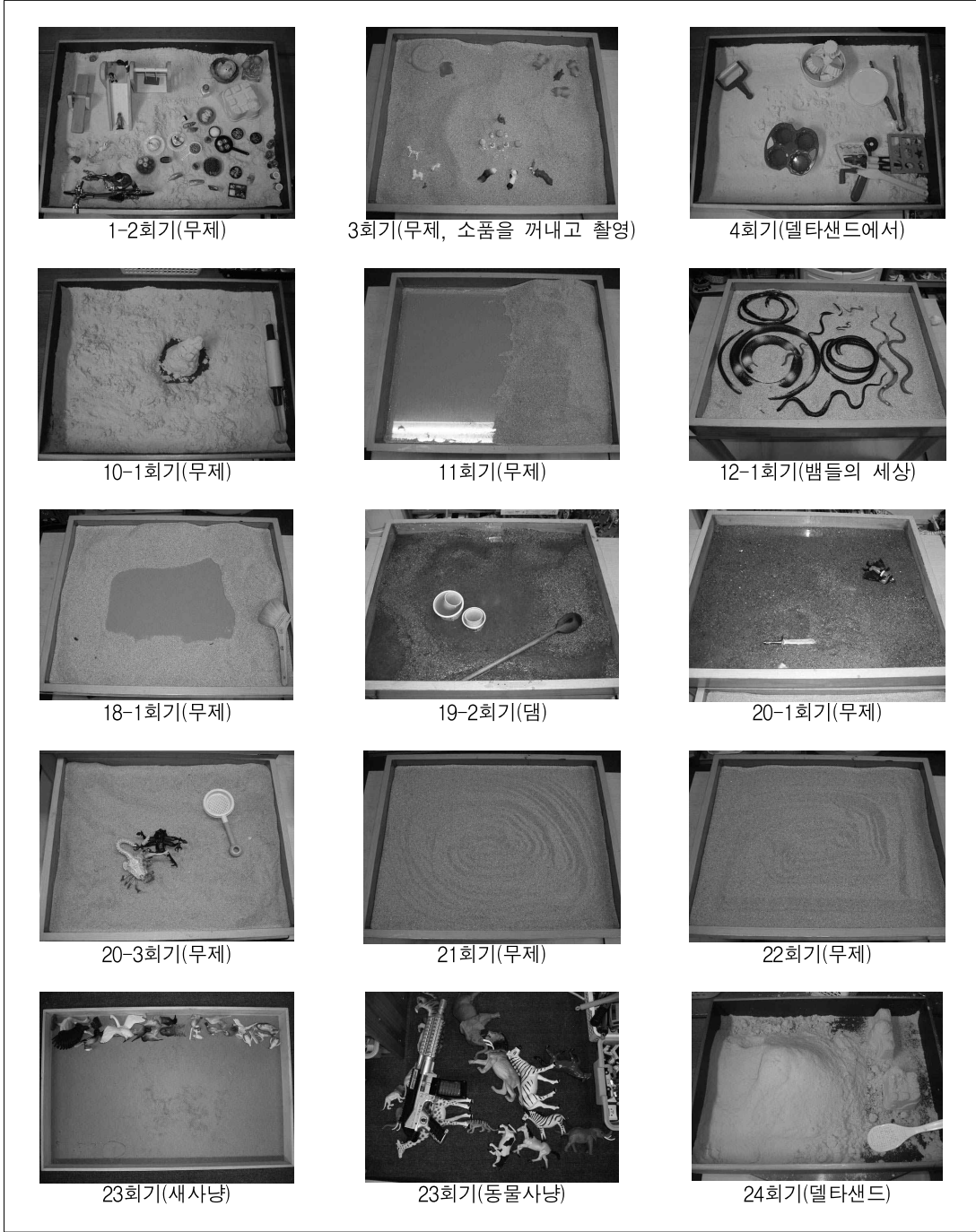
- and school maladjustment behaviors in a child with elective mutism. *The Journal of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8(1), 43-62.
- Neumann, E. (2010). *The origin of consciousness* (Y. K. Lee, Trans). Seoul : Analytical Psychology Center. (Original work published 2004).
- Park, J. J. (2010). Self-expression and peer relationships by art-therapist's attitude and material for behavior problem of children with selective mut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eui University, Seoul, Korea.
- Sharp, C. (2000). The lighthouse. *Journal of Sandplay Therapy*, 9(2), 85-97.
- Shin, J. H., & Suh, Y. S. (2005). Mother intervention art therapy case study of the children with selective mutism.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12(1), 113-136.
- Sim, H. O. (2011). A case study of a 5th grade girl from a divorced family recovering femininity through the sandplay therap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1), 55-65.
- Weinrib, E. L. (2004). *Images of the self : The sandplay therapy process*. Cloverdale, CA : Temenos press.
- Winter, R. (1999). Sandplay and ego development. *Journal of Sandplay Therapy*, 8(1), 91-105.
- Yang, M. H., & Kim, H. S. (2006). The effects of stimulus fading with positive reinforcement on the speaking behaviors of a child with selective mutism.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22(1), 29-47.
- Yu, N. J. (1997). The linguistic therapy effect of sandplay on children with selective mutism.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4(1), 155-186.

2011년 10월 28일 투고, 2012년 2월 7일 수정
2012년 2월 10일 채택

[부록 1]



[부록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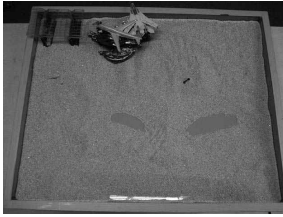
27회기(사격판)



28-1회기(스파이더맨)



29회기(원숭이)



30회기(공항)



31-3회기(눈사람)



32-1회기(모래 뭉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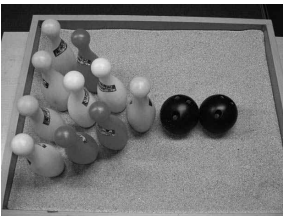
33회기(눈사람)



34회기(동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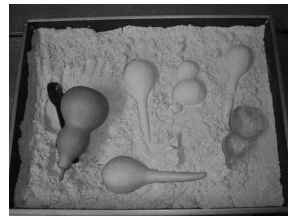
35회기(젓가락 화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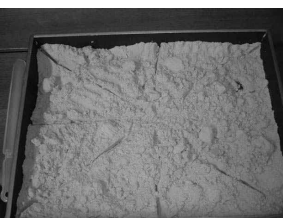
37-1회기(볼링장, 내담자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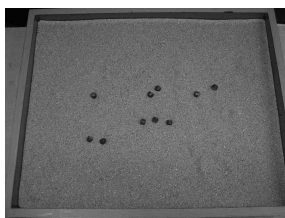
40-2회기(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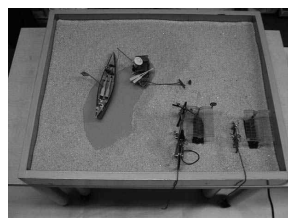
42-1회기(무제)



44회기(케익)



45회기(공기돌)



47회기(해변)

